



(2026년 10월 8일 목요일 19면)



채승우(오른쪽)·박지효 송파구의회이 '위례~과천 광역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채승우 송파구의원, 위례~과천선 공청회 참석

박지효 의원과 함께 두데미역 신설 등 현안 청취

채승우 송파구의원은 지난 2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위례~과천 광역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박지효 의원과 함께 참석해 사업 추진 상황과 지역별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 참석은 위례~과천선 두데미역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의원들은 주민 의견수렴 과정과 향후 사업계획 반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자 현장을 찾았다.

채승우 의원은 지난 9월 8일 제33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채 의원은 당시 두데미역과 북위례역 신설안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송파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당시 채 의원은 역 신설을 위한 종합 검토자료 마련과 서울시 및 국토교통

부 건의, 지역 정치권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8월 28일 채 의원은 장지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 의견수렴 현장을 찾았다. 그는 이번 공청회에도 참석해 두데미역을 비롯한 역사 신설 관련 요구사항과 사업 추진 과정을 점검했다.

채승우 의원은 "공청회에서 다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역할을 만들기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며 "두데미역 신설 역시 기초의원 한두명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 만큼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홍준성 기자 / roff1116@naver.com